

01 서론

1. 제목 : 노인 돌봄에 관한 충북도민의 인식조사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3조 3항 “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”에 관한 센터기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연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사회복지 현장 및 종사자와 관련된 복지정보에 관한 연구 주제를 선정

2. 목적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3조(센터의 기능) 3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3. 설문개요

- 연구주제 : 노인 돌봄에 관한 충북도민의 인식도
- 설문기간 : 2018. 11. 20(화) ~ 12. 4(화) 총 14일
- 조사대상 : 충북도민 242명
- 조사방법 : 온라인(E-mail, SNS, 문자)
- 표본추출 : 임의표본추출
- 표본오차 : 표본오차(SE : Sampling Error) 95% 신뢰수준에서 $\pm 6.72\%$

02 노인 돌봄에 관한 충북도민의 인식

1.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(242명)

1) 지역

중부권					남부권			북부권		
청주시	증평군	진천군	괴산군	음성군	보은군	옥천군	영동군	충주시	제천시	단양군
137명 (56.2%)	10명 (4.2%)	13명 (5.4%)	10명 (4.2%)	10명 (4.2%)	11명 (4.6%)	11명 (4.6%)	9명 (3.7%)	10명 (4.2%)	10명 (4.2%)	11명 (4.6%)
180명(74.2%)					31명(12.9%)			31명(12.9%)		

2. 연구결과 요약정리



본 결과는 충청도민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충북 전체로 일반화 할 수 없으며,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연구 배경 및 연구 개요

연구 배경
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돌봄에 관한 충청도민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돌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

연구 개요

- 연구대상 : 충청도민 242명
- 표본추출 : 임의표본추출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6.72%

노인 돌봄에 관한 충청도민의 인식조사

부모부양의 1차적 책임
'가정 주된 책임 지고
국가에서 경제적인 책임'
51.7%

부모 부양 여부
'예' 21.1%
'아니오' 78.9%

충청도민
부모님 부양 의향
'영편에 따라 책임'
62.8%

바람직한 부양형태
'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
서 자주 접촉하는 형태'
63.2%

부모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
'건강' 66.1%

충청도민
노후생활 준비
'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'
50%

노후에 자녀와의 동거
'따로 살고 싶다'
48.8%

노후를 위한 국가정책
'연금(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)'
32.2%

부모님 장기 요양 방법
'집에서 요양보호사 연계'
47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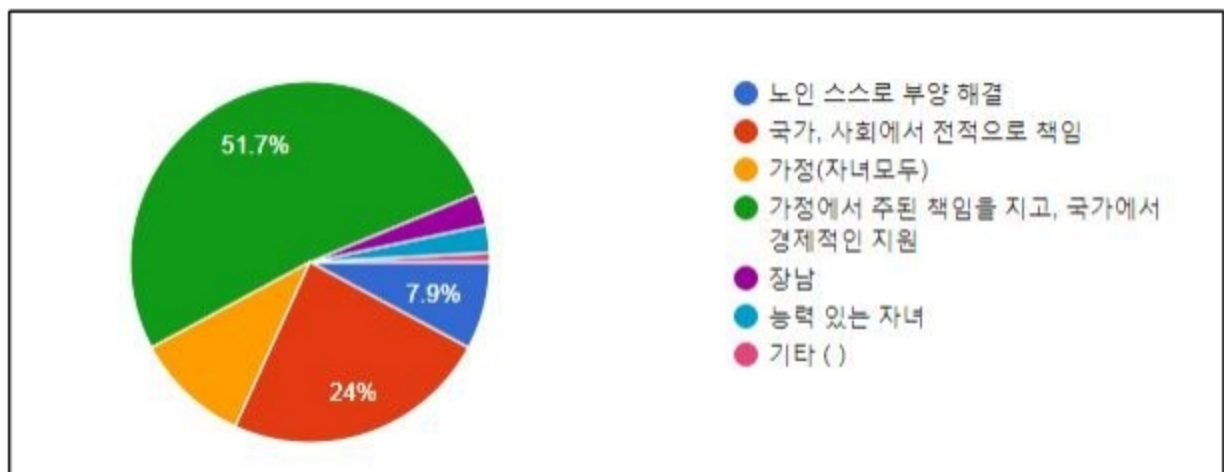
3. 세부 연구결과

단위 : %, 명

질문 1. 귀하께서는 노인부양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구 분	결 과	
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, 국가에서 경제적인 책임	51.7%	125명
국가,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	24%	58명
가정(자녀 모두)	10.3%	25명
노인 스스로 부양 해결	7.9%	19명
장남	2.9%	7명
능력 있는 자녀	2.5%	6명
기타	0.7%	2명
합계	100%	242명

노인부양의 1차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'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책임'이라고 답한 답변이 51.7%(125명)으로 전체 응답의 과반수를 넘는 것을 볼 수 있다. 다음으로는 '국가,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' 24%(58명), '가정(자녀모두)' 10.3%(25명), '노인 스스로 부양 해결' 7.9%(19명), '장남' 2.9%(7명), '능력 있는 자녀' 2.5%(6명), '기타' 0.7%(2명) 순으로 나타났다.



단위 : %, 명

질문 2.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십니까?

구 분	결 과	
예	21.1%	51명
아니오	78.9%	191명
합계	100%	242명

Yes



21.1%

O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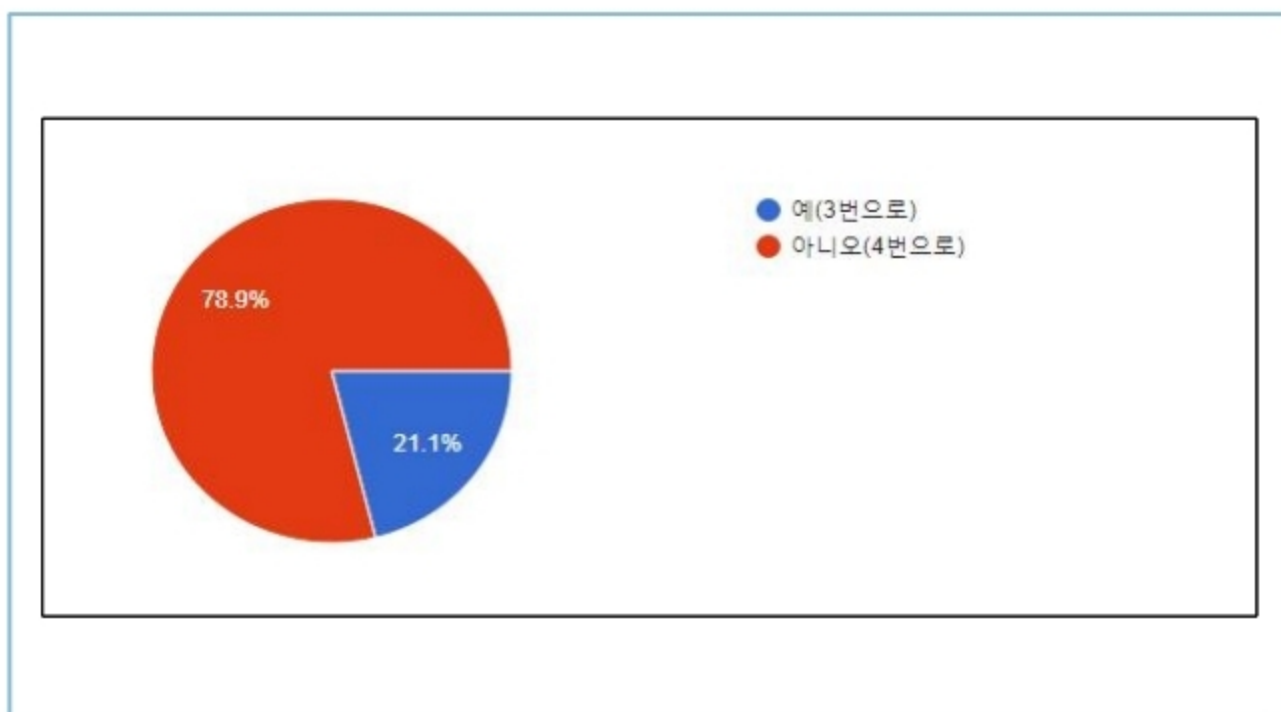


No



78.9%

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비율은 21.1%(51명), 부양하지 않는 비율은 78.9%(191명) 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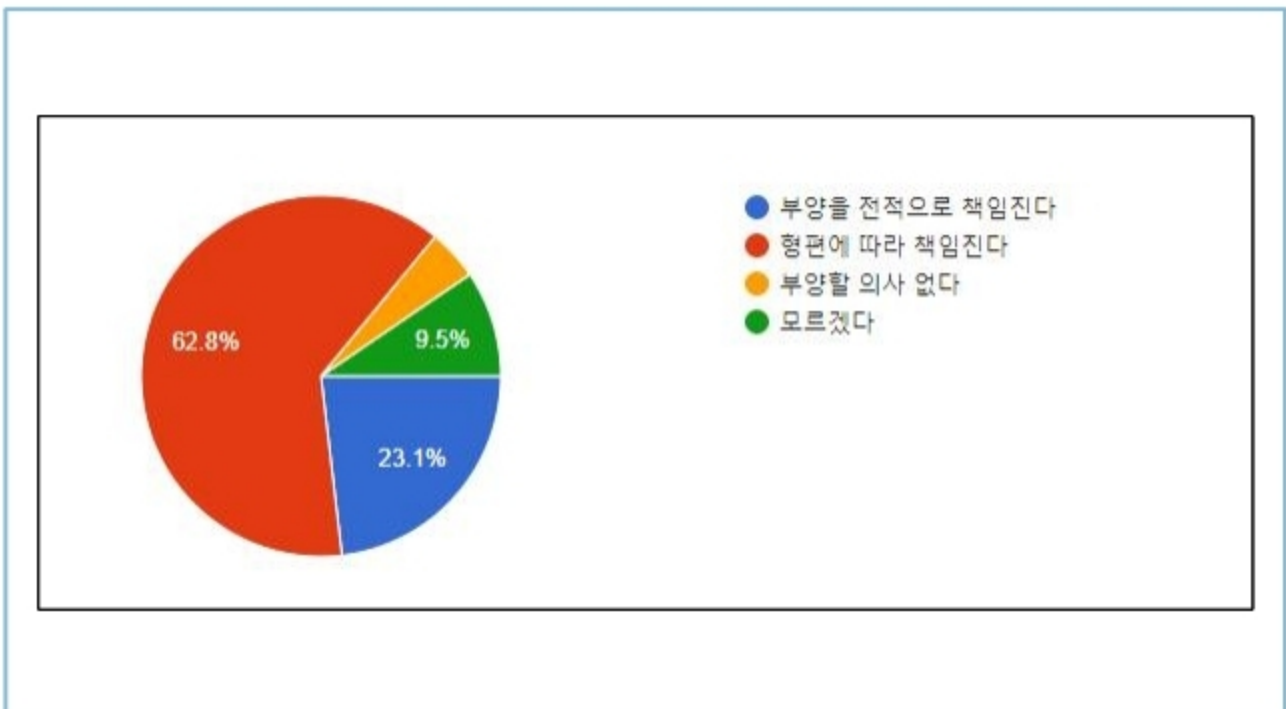


단위 : %, 명

질문 3. 귀하께서는 향후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이 있습니까?

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(191명)	구 분	결 과	
	형편에 따라 책임진다	62.8%	120명
전적으로 책임진다	23.1%	44명	
모르겠다	9.5%	18명	
부양 할 의사 없다	4.5%	9명	
합계	100%	191명	

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향후 부모님 부양 의향을 묻는 질문에 ‘형편에 따라 책임진다’ 62.8%(120명), ‘전적으로 책임진다’ 23.1%(44명), ‘모르겠다’ 9.5%(18명), ‘부양 할 의사가 없다’ 4.5%(9명) 순이었다.



단위 : %, 명

질문 4. 어떤 부양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구 분	결 과	
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접촉하는 형태	63.2%	153명
자녀와 함께 살면서 공간적으로 독립하는 형태	26%	63명
멀리 떨어져 살면서 어느 정도의 접촉만 유지하는 형태	6.2%	15명
부모와 함께 결혼한 형제,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형태	4.5%	11명
합계	100%	242명

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양형태를 묻는 질문에 '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접촉하는 형태' 63.2%(153명)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다음으로는 '자녀와 함께 살면서 공간적으로 독립하는 형태' 26%(63명), '멀리 떨어져 살면서 어느 정도의 접촉만 유지하는 형태' 6.2%(15명), '부모와 함께 결혼한 형제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형태(대가족)' 4.5%(11명) 순이었다.



단위 : %, 명

질문 5. 현재 혹은 향후 부모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구 분	결 과	
건강	66.1%	160명
경제적 지원	10.7%	26명
경제적 자립	7.4%	18명
정신적 지주	6.2%	15명
없음	5.8%	14명
손자녀 돌봄	2.9%	7명
기타	0.9%	2명
합계	100%	242명

현재 혹은 향후, 부모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'건강'이 66.1%(160명)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다음으로는 '경제적 지원' 10.7%(26명), '경제적 자립' 7.4%(18명), '정신적 지주' 6.2%(15명), '없다' 5.8%(14명), '손자녀 돌봄' 2.9%(7명), 기타 0.9%(2명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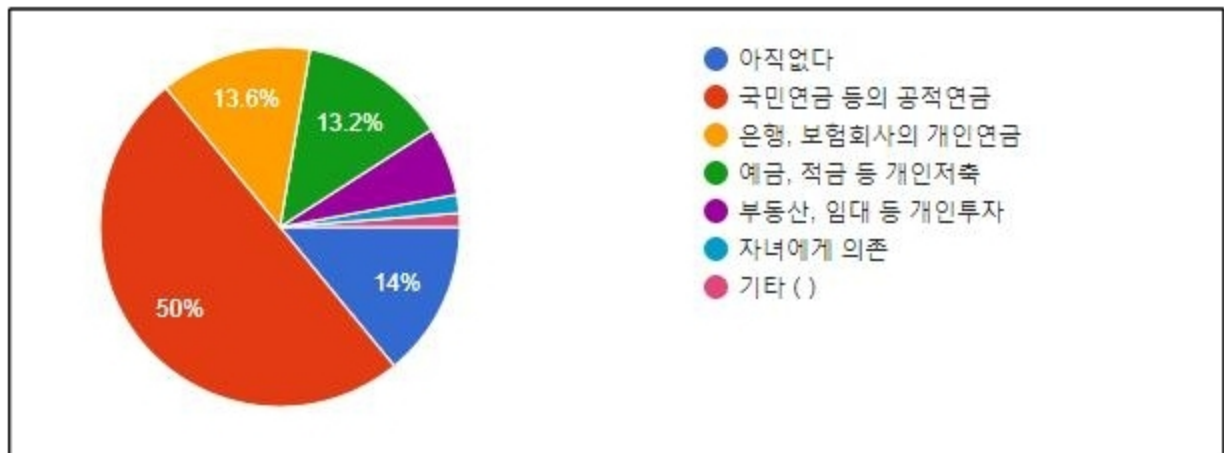


단위 : %, 명

질문 6. 귀하께서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?

구 분	결 과	
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	50%	121명
아직 없다	14%	34명
은행, 보험회사의 개인연금	13.6%	33명
예금, 적금 등 개인저축	13.2%	32명
부동산, 임대 등 개인투자	6.2%	15명
자녀에게 의존	1.7%	4명
기타	1.2%	3명
합계	100%	242명

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'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' 50%(121명)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. 다음으로는 '아직 없다' 14%(34명), '은행, 보험회사의 개인연금' 13.6%(33명), '예금, 적금 등 개인저축' 13.2%(32명), '부동산, 임대 등의 개인투자' 6.2%(15명), '자녀에게 의존' 1.7%(4명), '기타' 1.2%(3명) 순이었다.



단위 : %, 명

질문 7.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구 분	결 과	
따로 살고 싶다	48.8%	118명
여건이 허락하면 따로 살고 싶다	25.6%	62명
여건이 허락하면 함께 살고 싶다	17.8%	43명
함께 살고 싶다	4.5%	10명
모르겠다	3.7%	9명
합계	100%	242명

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묻는 질문에 '따로 살고 싶다' 48.8%(118명)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다음으로는 '여건이 허락하면 따로 살고 싶다' 25.6%(62명), '여건이 허락하면 함께 살고 싶다' 17.8%(43명), '함께 살고 싶다' 4.5%(10명), '모르겠다' 3.7%(9명) 순이었다.



단위 : %, 명

질문 8. 노후를 위한 국가의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구 분	결 과	
연금(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)	32.2%	78명
돌봄, 요양서비스	27.3%	66명
노후 소득보장(일자리 제공)	20.2%	49명
의료, 진료비 지원	12.4%	30명
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	7%	17명
기타	0.9%	2명
합계	100%	242명

노후를 위한 국가의 정책 중,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‘연금(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)’ 이라는 답변이 32.2%(78명)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. 다음으로는 ‘돌봄, 요양서비스’ 27.3%(66명), ‘노후 소득보장(일자리 제공)’ 20.2%(49명), ‘의료, 진료비 지원’ 12.4%(30명), ‘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’ 7%(17명), ‘기타’ 0.9%(2명) 순이었다.



단위 : %, 명

질문 9. 부모가 장기요양을 받아야할 건강상태라면, 귀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??

구 분	결 과	
집에서 요양보호사 연계(재가요양)	47.1%	114명
요양시설 입소	40.1%	97명
집에서 가족이 간병	9.9%	24명
기타	2.9%	7명
합계	100%	242명

부모가 장기요양을 받아야할 건강상태라면,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질문에 '집에서 요양보호사 연계(재가요양)' 라는 답변이 47.1%(114명)으로 가장 높았다. 2순위는 '요양시설 입소' 40.1%(97명), 3순위는 '집에서 가족이 간병' 9.9%(24명), '기타' 2.9%(7명) 순이었다.

